

흄의 필연성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효명(서울대 철학과)

I

흄(D. Hume)이 인과(因果) 관계의 필연성을 부인하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철학사적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흄의 인과적 필연성 부인의 정확한 의미와 의의가 과연 무엇인지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 인과 관계의 필연성과 관련된 흄의 문제 제기는 “우리가 두 대상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때 가지게 되는 필연성의 관념은 어떤 관념인가?”¹⁾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필연성의 관념(idea)을 낳게 한 인상(impression)을 찾아보기 위하여 원인과 결과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대상이나 사건들을 살펴본 결과 거기서 불변적 연결(constant conjunction)이라는 관계는 나오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필연성의 관념의 원천이라 할 만한 인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흄의 결론이었다. 흄의 이러한 결론은 의미론적으로 말하여 ‘필연성’ 또는 ‘필연적 연관성(necessary connexion)’이라는 표현이 대상 세계 즉 사실의 문제(matters of fact)에 적용되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주장과 같다고 하겠다.²⁾

그러나 사실 필연성 개념에 관한 흄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 다시피³⁾ 이상의 주장에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치부해 버려도 좋을 정도

1)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L. A. Selby-Bigge 편), Oxford: The Clarendon Press, 155쪽.

2) 참조 : 같은 책, 162쪽.

3) 최근까지 위의 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흄이 실증주의자였고, 또 그가 제안하였던

로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단순히 필연성의 관념에 대응되는 외적 인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필연성 개념의 본성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며, 이 점은 흄 자신도 십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필연성’이라는 표현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폐기해 버려도 좋다는 식의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필연성 관념의 본성과 원천을 외부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계울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흄은 사실 논의의 더 많은 부분을 필연성 관념을 놓은 외적 인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연성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관념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에 할애하였다. 우리가 필연성의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흄에 의하면 인간 본성의 자연적 사실에 속한다. 이 자연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외적 세계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는가——흡의 더 큰 관심은 사실 이 문제의 설명에 있었다. 흄이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인간 본성에 관한 학(學)을 정립시키는 것이 「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의 궁극적 목표였고, 바로 이 문제도 인간 본성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과와 필연성에 대한 흄의 이론을 논의할 때 지금까지는 흄이 필연성을 인간 본성과 관련하여 설명한 부분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 흄의 철학에 관한 한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그러나 필연성에 대한 흄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필연성의 관념을 낳았다고 할 수 있는 외적 인상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근거한 필연성 관념의 적극적 해명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위의 양 측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다른 글에서 하였기 때문에⁴⁾ 여기에서는 그 양 측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그

인과 이론은 필연성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제거한 소위 규칙성 이론(the Regularity Theory of Causation)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흄을 이러한 식으로 파악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학자들은 물론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이었다.

4) 김효명, “D. Hume의 因果論”, 『哲學論究』 15집, 서울대 철학과, 1987.

한 측면으로 구성된 흄의 설명이 가지는 논리적 함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말하자면 흄의 필연성 이론에 대한 일종의 평가가 이 글의 목적이 되겠다. 단 이 때 ‘평가’라는 말의 뜻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여기서의 ‘평가’는 흄이 생각한 필연성 개념을 양상(樣相) 개념 일반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연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의미의 평가라기보다는 흄의 철학 내에만 국한하여 그 안에서 필연성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매우 제한된 의미의 평가를 말한다. 필자는 흄의 필연성 이론에 대한 이러한 제한된 의미의 평가를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내려보고자 한다. 그 두 가지 문제란 첫째로 필연성 개념에 대한 흄의 설명이 그의 인과 이론과 과연 마찰없이 얹힐 수 있는가이고, 둘째로는 흄이 인과 문제와 관련하여 필연성을 부인하였다는 것이 하나의 공식적 견해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다시 말하여 정말 흄은 필연성을 전적으로 부인하였던가, 그리고 정말 그러하다 하더라도 흄이 과연 그러한 견해를 어느 정도 일관되게 견지하였던가 하는 문제이다.

II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필연성 문제에 관한 흄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필연성의 관념에 대응되는, 그러한 관념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외적 인상이 없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필연성’이라는 말을 외적 대상에 적용할 경우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 흄의 결론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연성이란 우리의 마음이 한 대상을 경험했을 때 수차례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그 대상에 항상 수반되어 왔다고 판단되는 다른 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끔 하는 심리적 습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하자면 내적 인상이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다는 것이 흄의 둘째 결론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론만으로 필연성 관념의 본성과 그 원천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만족할 수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외적 세계에 있다고 믿고 있는 필연성이 내적 인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여 필연성 관념의 기원은 인간 심리의 내부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것이 외부 세계에 있다고 믿게 되는지가 아직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흄의 설명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은 그의 관찰에 근거해 있다. 즉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외적 대상들에까지 넓혀 그것들과 내적 인상을 결합시키려는 큰 성향(propensity)을 가지고 있다.”⁵⁾는 관찰이 그것이다. 흄의 관찰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우리는 필연성과 힘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대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⁶⁾하게 된다. 흄의 이러한 설명은 말하자면 내적 인상이 어떻게 필연성의 관념을 낳는지 하는 문제를 자신의 것을 밖으로 투사하고(project) 객체화(objectification)시키려는 인간 마음의 성향에 의거하여 설명하려고 한 일종의 인과적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적 설명은 흄의 경우 전적으로 인간의 심리 현상에 대한 개인적 관찰에 의거해 있는만큼, 따라서 인간의 심리 현상에 대한 그의 관찰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시될 수 있는만큼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아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위의 두 결론에서 우리가 느꼈던 내용의 미진함은 어느 정도 메꾸어 주지 않나 생각된다. 필자가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점은 흄의 인과적 설명 자체와 관련하여 그것이 설명으로 완벽한 것인지, 또 그의 심리 관찰이 정당한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의 인과적 설명을 아쉬운 대로 설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의 전철학 체계와 관련하여 그러한 환원적 태도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지, 특히 비교적 일관된 생각을 가졌던 철학자로 평가되는 흄이 이 경우에는 필연성에 대한 환원적 입장을 과연 일관되게 견지하였는지 하는 문제이다.

5)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167쪽.

6) 위의 책, 167쪽.

우선 흄의 환원적 입장의 일관성 여부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그의 인과적 설명으로부터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지부터 간략히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필연성 관념에 대한 흄의 인과적 설명에 따른다면, 필연성이라는 것이 마치 외부 세계에 내재해 있는 듯이 보는 우리의 일상적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다. 우리가 왜 그러한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러한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는 흄의 주장에 따르면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성향이라는 인간 마음의 속성에 의거하여 설명된다. 흄의 이러한 설명은 분명히 인과적 설명의 범주에 속한다. 필연성이 외적 대상 세계에 있다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때 자신의 내부의 것을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신도 모르게 투사하고 객체화시키는 인간 마음의 성향이 바로 그러한 거짓 믿음의 원인이 되는 셈이다.

필자가 여기에서 문제삼으려고 하는 바는 흄의 이러한 인과적 설명이 타당한가 않은가 하는 점이 아니라, 흄이 의식했던 못했던 여기에서도 일종의 인과 관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그 인과 관계가 과연 그의 공식적인 인과 이론에 부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이 경우의 관계, 즉 거짓 믿음과 마음의 성향 사이의 관계가 흄 자신이 설명하였듯이 만약 인과 관계라면 이 관계도 과연 흄의 인과 이론에 무리없이 포섭되고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믿음과 성향 사이의 인과 관계는 그 관계 항이 모두 심리적인 것들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특수성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흄은 분명 인과 관계가 심리적인 것들과는 무관하고 물리적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두지는 않은만큼⁷⁾ 이 특수 인과관계도 그의 인과이론 일반에 들

7) 물리적 사건과 심리적 사건 사이에도, 또는 심리적 사건들 상호간에도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심리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한 현대의 물리주의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흄은 지금 문제삼고 있는 믿음과 성향 사이의 관계 외에도, 인상과 관념 사이의 관계도 인과 관계의 일종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과 관계를 물리적 세계에만 국한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심리적인 것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의미있게 말하자면 흄 스스로가 인과 관계의 한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공간적 근접성(spatial contiguity)

어맞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점을 논변하기 위해서 편의상 성향을 P, 필연적 연관성을 N, 두 사건 e 와 f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는 믿음을 B(eNf)라고 표기하기로 하자. 문제의 거짓 믿음에 대한 흄의 인과적 설명을 따른다면, B(eNf)의 원인은 P이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즉 P가 B(eNf)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흄의 인과 분석에 따라 우리는 [아니면 적어도 흄은] P 와 B(eNf)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다. 이 후자의 믿음은 말하자면 제2차 믿음이라 할 수 있겠고 B($PNB(eNf)$)라고 표기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문제는 흄의 설명을 논리적으로만 따른다면 B($PNB(eNf)$)도 거짓 믿음이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거짓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자연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흄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지 않았으리라 짐작되지만, 그의 인과적 설명 방식과 인과 이론에 엄격히 따른다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러한 제2차 믿음의 원인도 밝혀지고 설명되어야 한다고 할 때 역시 그 원인은 흄의 설명에 의거하여 마음의 성향에서 찾아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는 P와 B(eNf)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추정된 흄의 대답 방식은 “인간 마음의 자연적 성향 때문이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인과 관계, 즉 P와 B($PNB(eNf)$)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P와 B($PNB(eNf)$)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는 제3의 거짓 믿음도 또 하나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만 끌고 간다면 무한히 많은 인과 관계, 무한히 많은 거짓 믿음이 가능하게 된다. 말하자면 필연성의 믿음에 대한 흄의 인과적 설명은 믿음과 인과 관계의 무한 퇴행이라는 논리적 난점에 봉착한 셈이 된다. 이러한 무한 퇴행에 빠지게 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흄이 「인간 오성론(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에서는 근접성에 대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삭제해 버렸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는 것은 물론 흄의 설명의 핵심 요소인 성향이다.

특히 여기에서 문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무한 퇴행인데, 이에 대하여 흄 또는 흄주의자들은 어떤 반론을 펼 수 있을지는 물론 미지수이다. 아마도 추측컨대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즉 우리가 그러한 무한한 믿음을 사실상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반론이다. 무한한 믿음 고리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제2차 믿음이라고 한 문제의 믿음 $B(PNB(eN_f))$ (논의의 편의상 이 믿음을 B' 이라고 하자)조차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이 반론의 요지가 되겠다. 이러한 반론은 논리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반론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만, 일단 사실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반론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B' 과 같은 믿음이 사실적으로 가능한 믿음인가? 성향이라는 것이 “자신의 것을 외부 대상에까지 뻗치도록 하려는” 정신 활동이라고 규정한 흄의 말을 염두에 둔다면, B' 과 같은 믿음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B' 에서 서로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두 관계 항은 외적 대상이 아니라 P 와 $B(eN_f)$ 라는 심적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성향이 외부 대상뿐만 아니라 심적인 대상과도 관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B' 과 같은 믿음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결국 B' 과 같은 믿음이 가능한 믿음인지 아닌지 하는 물음은 성향이 내적인 것에도 스스로를 투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여기에서 내적 대상들 중에는 바로 투사하는 주체인 성향 자체도 포함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를 좀더 좁혀 말한다면 결국 성향이라는 인간 정신의 활동이 일반적으로는 외적인 것들을 그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데,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 특히 그 중에서도 바로 자기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의 심리에 관한 사실적 문제인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선 심리학의 경험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존해야 할 것이지만, 아직은 그러한 결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결정적인 단언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인간의 정신 활동의 기

본 성격 중에는 자기회귀적(自己回歸的) 성질도 있다는 일반적인 동의(同意)를 염두에 둔다면,⁸⁾ 성향이라는 정신 활동도 정신 활동인 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만은 예외라는 주장보다 더 큰, 아니면 적어도 그 정도만큼의 설득력은 가질 수 있으리라는 점만 지적해 두겠다.

또 하나의 가능한 반론은 B'과 같은 믿음이 무한한 수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되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과 성향에 관하여 어떤 완결된 논리적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되지 않는 한, 무한퇴행 자체가 무슨 큰 잘못이고 오류인가 하는 반론이다. 그러나 무한 퇴행이 오류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떠나 B'이라는 단 하나의 믿음만에 국한해 보더라도 만약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흄에 의하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B'도 역시 거짓 믿음인가 하는 물음이 가능하다. 그런데 B'도 역시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는 믿음이므로 거짓 믿음이라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필연성 관념에 대한 흄의 인과적 설명과 관련해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결코 거짓 믿음이어서는 안된다는 데에 있다. 요컨대 흄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B'은 거짓 믿음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이다. B'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성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믿음이다. 다시 말하여 B'은 어떻게 필연적 연관성의 존재에 대한 거짓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흄의 환원적

8) 특히 안다(knowing)는 행위가 그러한 자기회귀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많은 현대 인식론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참조: R. Chisholm, *Theory of Knowledge* 제2판,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77, 113쪽.

“I know that p.”와 “I know that I know that p.”가 동치(同值)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옛부터 논란이 있어 왔지만, “I know that I know that p”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었던 것 같다. 참조: J. Hintikka, *Knowledge and Belief*, Ithaca: Cornell Univ. Press, 1962, 103쪽.

- 인과적 설명이 타당함을 뒷받침해 주는 믿음이다. 따라서 이 믿음이 만약 거짓이라면 흄의 설명도 그 타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B'에 근거한 흄의 설명은 일종의 딜레마에 봉착한 셈이다. 한편으로 만약 B'이 필연적 연관성의 존재에 대한 다른 어느 믿음과 마찬가지로 거짓 믿음이라면, 필연성 관념의 출처에 관한 흄의 설명도 거짓이 되고 말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만약 B'이 거짓 믿음이라면 B(eNf)가 인간 마음의 성향으로부터 야기된다는 흄의 주장도 거짓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야기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필연성을 포함하지 않고 불변적 연결로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B(eNf)가 성향으로부터 야기된다는 흄의 주장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반박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만약 B'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면, 물론 흄의 설명은 위와 같은 운명이나 반박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그의 다른 주장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그의 주장은 보편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적어도 하나의 경우 즉 B'의 경우에는 거짓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I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위에서 고찰한 문제가 흄의 설명 구조 속에 내재하는 문제라면 앞으로 다를 문제는 외재적 관점에서 흄의 설명을 보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그것은 흄이 필연성의 관념에 대한 환원적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미리 밝혀 두자면 흄이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감(感)이다. 여기서 ‘감’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흄이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을 엄밀히 논증하기보다는 – 그 어느 쪽으로든 여기서 논증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 말하

자면 방증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추측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두기 위해서이다.

흄은 필연성에 관하여 자신이 의도하였든 안하였든 결과적으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그가 필연성을 인간 마음의 습성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려 하였지만, 어떤 대목에 가서는 스스로가 부인하였던 외적 세계에 있는 것으로서의 필연성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필연성에 대한 이러한 흄의 양면적 태도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논증의 흥내를 내보기로 하자.

- (1) 필연성은 심리적 결정(mental determination)이다.⁹⁾
- (2) 필연성은 힘(power)과 동의어(同義語)이다.¹⁰⁾

위의 두 주장은 물론 흄의 주장들을 단순화시킨 것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흄이 필연성뿐만 아니라 힘(power, force) · 효능(efficacy) · 에너지 등과 같은 신비적(occult) 성질들도 모두 필연성과 동의어로서 심리적인 것으로 환원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이 점을 특기할 만하다고 보는 이유는 앞으로 논의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흄은 한편으로는 힘과 같은 것은 심리적인 것으로 환원된다고 하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자신이 제시한 그 환원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예를 우선 들자면 흄은

“물질적 대상이든 비물질적 대상이든 대상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다는 점은 나도 충분히 인정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힘이라 부르든 효능이라 부르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¹¹⁾

고 하였다. 이 말은 물론 그가 힘이라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어떠한 분명

9)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166쪽.

10) 참조 :위의 책, 157쪽.

11) 같은 책, 168쪽.

한 관념도 가질 수 없다는 인식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온 말이다. 이 점은 이 점대로 이해하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특히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흄이 '필연성'과 동의어라고 주장되는 '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utterly unacquainted)' 어떤 것을 지시하는 듯이 예기고 있다는 점이다. 흄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힘'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이 말은 분명 '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명확한 관념을 주지는 않지만, 여하튼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3)의 명제도 흄의 주장으로 삼을 수 있겠다.

(3) 우리는 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명제가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액면 그대로 서는 앞의 두 명제 (1)과 (2)에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과 (2)로부터

(4) 힘이란 심리적 결정이다.

가 나올 수 있고, (3)과 (4)로부터

(5) 우리는 심리적 결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필연성에 대한 흄의 심리적·환원적 설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어긋나기 때문이다. 만약 명제 (5)가 참이라면 흄의 설명은 그 스스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관하여 그 이상의 것을 논하고 있는 자기 기만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흄이 말한 명제 (3)의 진정한 의미를 곡해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흄이 우리가 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마치 그가 힘의 존재를

미리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관념은 가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여김은 오해이며, 특히 그의 인식론의 기본 입장에 따르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반론의 요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에 대하여 우리가 흄의 생각과 철학, 특히 그가 한 말을 이해하려 할 때 꼭 그의 인식론적 주장에만 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말은 흄이 「인성론」을 작성할 때 철두철미 서두에서 밝힌 그의 인식론적 입장에만 입각해 작성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말이다. 흄이 무엇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앞에서 인식론을 논할 때 제시하였던 이러저러한 기준과 관련하여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관념의 것인지 아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물론 흄은 “아니다,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알지는 못하지만, 즉 명확한 관념은 형성할 수는 없지만 명확하지 않은 채로 어떤 일반적인 관념 정도는 혀용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물음에도 흄이 반드시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용한 흄의 말, 즉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대상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다는 점은 나도 충분히 인정한다.”는 말을 염두에 둔다면,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대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는 흄의 또 다른 주장들에서도 추출해 볼 수 있다. 필연성에 대하여 흄은

(6) 필연성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¹²⁾

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간오성론(*An Enquiry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우주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전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

12) 참조 : 같은 책, 165쪽.

(power or force)은 우리에게 완전히 숨겨져 있으며, 물체의 어떠한 감각적 성질에서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¹³⁾

힘이라는 것이 완전히 숨겨져 있어서 우리의 감각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전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도 그의 인식론적 기준에만 의거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일단 그러한 규정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현재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여기에서 주장되는 바가 명제(6)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의 인용구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7) 힘이란 전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이다.

그런데 필연성과 힘이 동의어라는 흄의 주장에 따른다면, (6)과 (7)로부터

(8) 전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또 필연성이란 심리적 결정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라는 주장과 결합하면, 전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결정 이외에 별것이 아니다라는 이상스런 결론이 나온다. 흄의 철학도 상당 부분 관념론적 색채를 띠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베클리(Berkeley)식의 관념론이지 정신적인 것이 전우주를 움직이게 한다는 식의 관념론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관념론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러한 동일성 명제가 나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도 역시 흄이 말한 바를 문맥은 무시하고 바로 그 부분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겠다. 사실 “전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완전히

13) D. Hume, *Enquiries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L. A. Selby-Bigge 편), Oxford, 1902, 63쪽.

숨겨져 있다.”는 문제의 발언은 어느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전후 문맥과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이해하였을 때 “힘은 전우주를 움직이게 한다.”는 명제를 흄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 발언을 문맥상으로 이해할 때 “전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표현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전우주를 움직이게 한다고 주장되는 또는 믿어지는 힘”이라고 바꿔어야 할 것 같고, 흄이 강조하고자 한 바는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힘이라는 데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숨겨져 있다”는 부분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흄이 문제의 구절에서 뜻하고자 하였던 바가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엉음에는 틀림없다.

이와 같이 이해하였을 때 물론 위의 명제 (8)과 같은 이상스러운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흄이 힘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숨겨져 있다”라고 하였을 때, 그러한 주장을 과연 없는 것을 두고 또는 없다고 믿는 것을 두고 하였는지 아니면 무엇인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있을 것만큼은 믿어도 좋다는 태도로 하였는지는 앞에서도 논의하였다시피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흄이 힘과 같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을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보았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는 점만큼은 믿음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이 논점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되는 발언을 몇 가지 더 보충해 보기로 하자. 흄은 「인성론」 1권 4부의 서두에서 회의주의를 다루는 중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참 또는 거짓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회의주의자들의 범주에 자신도 속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러한 회의주의적 태도를 심각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견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서 별로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말하기를,

“우리가 숨을 쉬고 또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필연성에 의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도 그러한 필연성에 의해서이다.”¹⁴⁾

라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책 2권 3부의 서두에서 자유와 필연을 논하는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외부 물체들의 작용은 필연적이고, 그것들이 상호 끌어당기고 결합하고 하는 작용에는 아무렇게(indifference)라든지 되는 대로(liberty)라고 생각 할 수 있는 흔적은 조그만치도 없다. 모든 대상은 절대적 운명에 의하여 일정 한 정도의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운동하는 정확한 궤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은 그것들이 갑자기 천사나 다른 어떤 초 월적인 존재로 둔갑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물질의 작용은 필연 적 작용의 예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어떤 것이든 물질과 같은 발판 을 가진 것이라면 모두 필연적인 것으로 인지되어야 한다.”¹⁵⁾

또 이에 이어 다음과 같은 구절도 나온다.

“우리는 물질의 부분들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원리들에 따라 결합된다는 점을 아무리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⁶⁾

이상과 같은 구절들에서 흄이 사용하고 있는 ‘필연성’ 또는 ‘필연적으 로’라는 말은 과연 어떤 뜻을 가진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어떻 든 적어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점은 그 말들이 자연, 자연의 원리, 물 질의 작용 등과 같은 외적 대상에 수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은 분명히 ‘필연성’이라는 말이 외적 대상에 적용되면 ‘잘못 된’ 것이고 또 그렇게 적용되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는 자 신의 주장과 조화되기 힘들다.¹⁷⁾

14)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183쪽.

15) 위의 책, 399~400쪽.

16) 위의 책, 401쪽.

17) 이러한 모순이 생기게 된 데에는 더 근원적으로 ‘필연성’과 ‘힘’을 동의어라고 본

IV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흄의 두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하여 적어도 현재로선 두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다고 보아진다. 그 하나는 두 주장이 겉으로 보아서는 서로 상반되고 배치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두 주장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는 해석이다. 이 두 해석 중에 어느 해석이 옳다든가 아니면 흄의 본래 의도에 가장 근접

흄의 주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흄은 별다른 논의도 없이 이 주장이 타당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전제가 타당한지는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힘(power or force)’이라는 말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일의적(一義的)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매우 애매한 말 중의 하나였다. ‘필연성’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힘’보다는 그 정도가 좀 덜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애매한 말들이 동의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마저도 애매한 주장이 되어 버리기 쉽다. 그래서인지 흄도 그 주장을 할 때 사실은 ‘거의(nearly)’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그러나 ‘거의 동의어’라고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없고 오히려 거기에 더 모호성(vagueness)까지 덧붙인 결과가 되었다. ‘힘’이라는 말의 애매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흄이 ‘힘’이라는 말을 인간의 정신 활동을 특징짓는 데에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복합 관념과 관련하여 왜 관념들은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결합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흄은 “왜 그러한지의 원인은 대개의 경우 알 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원초적인(original) 성질에서 찾아져야 한다.”(*A Treatise of Human Nature*, 13쪽)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원초적인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는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gentle force”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는 그것이 gentle하든 않든 관계없이 ‘force’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 경우의 ‘force’라는 말은 제대로 사용된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이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필연성의 관념도 관념 결합의 원리에 의한 것임에는 틀림없고, 따라서 필연성 관념의 생성도 ‘force’라는 말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흄의 주장대로 ‘필연성’과 ‘힘’이 동의어라면 위의 설명은 명백한 순환론에 빠지게 되고, 거꾸로 그 설명이 순환적 설명이 아니라고 강변하려면 ‘필연성’과 ‘힘’이 동의어라는 주장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한 것이라고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후자의 해석이 더 그럴 법하지 않나 하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필자가 이 소견으로 기울어지게 된 데에는 첫번째 해석이 결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그럴 법하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작용 하였다. 첫번째 해석, 즉 흄의 두 주장이 사실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해석의 근거는 흄이 위의 인용문들에서 한 말을 흄 자신의 주장으로 보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바를 대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만약 정말 그러하다면 문제를 가장 산뜻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필연성에 관련된 문제의 흄의 두 주장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흄 철학의 일관성도 잦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불행하게도 문제를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것은 예컨대 “우주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전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완전히 숨겨져 있다.”라든지 “우리는 물질의 부분들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원리들에 따라 결합된다는 점을 아무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등과 같은 주장을 흄이 일반인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한 말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바로 앞에서 한 말에 이어 그러한 힘은 “물체의 어떠한 감각적 성질에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힘 같은 것이 감각적 성질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흄이 그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한 바인데, 이 말은 “전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완전히 숨겨져 있다.”는 말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것으로서 동일한 문장에서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일반인들의 생각을 아무런 단서나 설명도 없이 대신하고 있고 뒤에서는 자신의 말을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인용한 구절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일반적 생각을 대신한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문제의 두 주장이 사실상 서로 배치되고

갈등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해석 쪽으로 돌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해석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흄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다. 다만 흄이 왜 그렇게 뻔한 모순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추정적인 분석은 해볼 수 있지 않나 한다.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흄이 필연성이 마치 자연에 있는 듯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함이 ‘필연성’이라는 말의 잘못된 사용인 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거짓 믿음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말함이 잘못된 말이고 그렇게 믿음이 거짓 믿음인 줄 반드시 몰랐다기보다는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말했으리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실이 어떠하든 – 의식을 하면서도 그러한 말을 한 것인지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도 없으려니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 중요한 것은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데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은 첫번째 분석에서 나온 ‘어쩔 수 없이’라는 말과 두번째 분석에서 나온 ‘자신도 모르게 자연적으로’라는 말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물론 이 두 표현은 필자가 임의로 붙인 말이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표현이라도 상관없겠다. 흄이 바보였다든가 정신분열증 환자였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왜 그가 그러한 모순된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위의 두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흄이 ‘필연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경험론적 인식론에 입각하여 그렇게 제한하였지만, 막상 스스로가 자연의 원리나 자연의 작용 등을 설명하고 기술하고자 하였을 때는 ‘필연성’이라는 말을 그러한 기술이나 설명에 적용해서는 잘못이라는 자신의 의미론적 진단에 따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필연성’ 또는 ‘필연적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¹⁸⁾ 우리가 자

18) 흄이 논의하고 있는 필연성이란 과연 어떤 의미의 필연성인지도 그렇게 분명한 것 같지 않다. ‘필연성’과 ‘힘’이 동의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의 심중에 있는 ‘필연성’의 뜻은 논리적인 것일 것이다. 그러나 소위

연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는 다르게 일체의 양상(樣相) 개념을 사용함이 없이 자연을 기술한다고 상상해 본다면, 그렇게 기술된 세계는 일단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와는 사뭇 다를 것임은 물론이고 내용적으로도 훨씬 더 빈약한 세계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과학, 지금과 같은 예술, 지금과 같은 문화와는 다른 과학, 다른 예술, 다른 문화가 전개되었으리라는 점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자연이나 세계가 양상 개념의 도움 없이도 기술될 수 있다고 볼 때, 문제는 왜 우리는 자연을 항상 양상 개념의 도움을 빌어 기술하느냐에 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왜 흄은 자신의 진단에 따라 양상 개념을 사용함이 없이 자연을 기술하지 않았던가에 있다. ‘필연성’을 그렇게 사용하면 잘못이라고 진단한 흄 스스로도 자연을 기술할 때 ‘필연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안될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던가? 다시 말하여 자연 기술에 ‘필연성’의 적용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속하는가? 사실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 흄의 대답이었고, 바로 그렇다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 흄의 철학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흄 자신도 인간인 이상 자연을 기술할 때 그러한 본성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설혹 ‘필연성’에 대한 논리

‘논리적인 필연성(logical necessity)’도 흄에 의하면 심리적인 것으로 환원된다.

“ $2+3=5$ ”라든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다”와 같은 명제가 갖는다고 생각되는 필연성도 흄에 의하면 물리적 필연성(physical necessity)과 마찬가지로 그 명제를 이해하는 인간의 오성 작용에로 환원된다.(*A Treatise of Human Nature*, 166쪽 참조) 이와 같이 논리적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흄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필연성’과 ‘힘’이 동의어라는 주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때의 필연성이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연성’의 애매성은 여전히 남는다. 「인성론」 후반에서 흄 스스로도 그러한 애매성을 인정한 듯하다.

“나는 필연성을…원인이라는 말의 두 정의에 맞추어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한다. 나는 필연성을 유사한 대상들의 불변적 연결에다 두기도 하고 또한 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에로의 마음의 추리에 두기도 한다.”(*A Treatise of Human Nature*, 409쪽)

이 대목은 「인성론」에서의 필연성에 대한 유일한 공식적 정의이다. 대상들의 불변적 연결에 둔다고 한 필연성은 물리적 필연성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흄이 여기서 왜 필연성을 심리적인 것으로만 정의내리지 않고 물리적으로 내린 정의 도 병렬시키고 있을까가 되겠으며, 이 문제는 바로 본론에서 다룬 필연성에 대한 흄의 양면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적·이성적 분석에 배치되더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흄은 자신이 분석하여 파헤쳐 놓은 함정에 스스로가 빠져든 셈이다. 그러나 그 함정은 흄뿐만 아니라 누구이든 빠지지 않을 수 없는 함정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 온 흄의 두 주장간의 갈등과 모순은 흄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의 갈등이요 모순이다. 그것이 숙명적인 까닭은 인간 스스로가 원래 그러한 모순, 즉 이성과 자연적 믿음간의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리라.